

광주·전남 유권자 “文-安 이전투구 그만”

☎ '선택 2017' 대선 D-27

“도대체 언제까지 네거티브로 표심을 얻을려고 하는지,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과 미래를 제시해서 유권자를 감동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5·9 참미 대선’에서 ‘양강 체제’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네거티브 난타전에도(度)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이자, 국민의당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준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은 양 측의 서로 물고 뜯는 ‘진흙탕 싸움’에 실망과 함께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10년 만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수정당의 네거티브 공격이 아닌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야권 후보 간 네거티브 공격이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조기대선 전망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연초부터 ‘문모닝’(아침마다 문 후보 비판을 하는 것)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문 때리기’에 집중해왔다.

민주당도 최근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문 후보를 바짝 추격하자 ‘안모닝’, ‘안이브닝’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안 후보의 ‘차떼기’ 경선 의혹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관련 ‘말 바꾸기’ 논란, 딸 재산 미공개 의혹, 부인 김미경 교수의 특혜채용 등에 화력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당은 ‘적폐세력’이 안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 후보의 발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교통사고 은폐 의혹, 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맹폭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 후보가 안 후보에게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 세력’ 정권

민주당·국민의당 연일 원색 비난 공방…TV토론서 심화 우려
선거 후 협치 상대…“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정당당당 승부”

을 연장하려는 기득권 세력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발언을 두고 맹공격을 펼치며 호남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의 격을 떨어뜨리는 의혹이나 궁극적은 당연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네거티브와의 구분이 모호한 가운데 연일 양측이 원색적인 표현을 담은 논평 폭탄을 쏟아내자 당혹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선거일이 임박하고 13일부터 시작되는 TV토론회 등을 앞두고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유권자들은 양측이 네거티브의 경계를 넘나드는 높은 수위의 공방전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는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으로 다시 바꿔 놓을 수 있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양측 모두 과거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외치고 있는 만큼 남은 선거일까지 지역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차피 대선 이후 협치와 연정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되고 상처입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그러에도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공방은 그동안 한 눈 팔지 않고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침몰 1091일 만에... 세월호 인양 작업이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1091일 만인 11일 오후 완료됐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 철재부두에 세워진 받침대 위에 거치된 모습. 해수부는 앞으로 1주일간 외부세척과 방역,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측정, 안전도 검사를 하면서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세월호 인양 완료... 17일부터 미수습자 찾기

110m짜리 받침대 위에 거치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11일 마무리되면서 선체 인양작업이 모두 완료됐다. 이르면 다음주 초 9명의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선체 수색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6·13면〉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세월호 선체를 목포신항만 부두 내 철재 받침대에 올려놓는 거치 작업을 끝으로 인양 작업이 완료됐다. 지난 2015년 8월 7일 진도 앞바다 침몰해역에서 인양작업이 시작된지 613일 만이다.

세월호는 바다와 맞닿은 항만 끝에서 내부로 40m 떨어진 곳에 길이 110m짜리 받

침대 3개 위에 거치됐다. 객실이 위치한 선체 뒷부분이 목포대교 방향을 향해 옆으로 누운 채다. 세월호 선체는 본래 객실이 위치한 배 뒷부분이 항만내부를 향하고 바닷물을 향해 거치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0일 모듈 트랜스포터를 이용해 선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선체 변형 현상이 관

찰돼 그 자리에 세워졌다.

세월호 인양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현장수습본부는 미수습자 수습 체제로 전환되며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르면 17일 선체수색에 들어간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목포=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5·18 시민학살 가담 공수부대 현장 지휘관들 법의 심판대 세웠어야”

안병욱 전 과거사위 위원장
檢·法, 진실규명·처벌의지 부족
시민에 발포 정당화 될 수 없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학살에 연루된 현장 지휘관과 함께 맹목적으로(학살에) 가담한 사병들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과 함께 법의 심판대에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2면〉

전두환·노태우 재판(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사건)은 세계적 재판, 역사적 심판으로 불렸지만 학살 가담 주요

피의자 상당수가 기소조차 안 되는 등 처벌 의지가 약했고, 법원 역시 12·12군사반란에 중점을 두고 재판을 해 학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1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안병욱 전 진실화해추진위원회위원장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대법원판결 20주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조발표를 한다.

안 전 위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전·노 재판’의 핵심은 ▲5·18내란(5·17비상계엄전국확대와 광주학살)이 전두환 일당의 ‘야욕 달성’을 위한 시민학살이라는 실체를 확인하고 ▲범죄 가담자 전원을 처벌하는 데 있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 모두 이를 규명하고 가담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게 안 전 위원장 지적이다.

검찰을 향해서는 독일 연방법원이 통일 이전 민간인에 발포령을 내렸던 옛 동독 국경수비대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살상명령과 총기사용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판시하면서 점을 거론하면서, 주모자 한 두 명을 법정에 세운 것으로는 심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역사의 심판이 아닌 실정법에 따른 수사 재판이라는 점에서 당시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 세력 15명만 기소하고 광주에 투입된 학살을 자행한 공수부대 사병은커녕 공수부대 대대장, 연대장 등 진압군 대부분을 재판에 부치지도 않은 검찰권 행사는 명백히 잘못이라는 견해다. 전·노씨가 검찰 수사와 재판을 가리켜 정치적 보복이라고 항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안 전 위원장 판단이다.

이와 함께 안 전 위원장은 검찰이 법원에 제시한 증거 상당수는 신문기사, 참고인 수기, 국회 광주청문회 자료라는 점에서 수사와 기소 모두 특별검사에 맡겨야 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재판부 역시 12·12군사반란에 중점을 두고 재판을 하다 보니 시민학살 진상을 거의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안 전 위원장은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들 행위가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지만 구체적 피해 사실 조사와 증인 신문이 법정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실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그 결과, 합당한 처벌로 연결되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안 전 위원장은 “법원이 공수부대의 과잉진압과 발포행위로 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자위권 발동은 살상행위를 유효하는 발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의미를 둘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검찰은 처음부터 그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지않았다. 국민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했을 뿐이며 그런 입장이 재판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광주 동구 치킨집·카페 공화국 ▶14면

청년이 미래다-귀농 김준한씨 ▶18면

KIA 임기영 첫 승 사냥 나선다 ▶20면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17 PINK RUN

핑크런 광주대회

핑크리본사랑마라톤에서 핑크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5.14.(일요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
기념품 가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런 사무국 (1688-9744)
참가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순 접수 www.pinkcampaign.com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사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MBC, KBC광주방송, KBS광주방송총국

A MORE BEAUTIFUL WORLD / AMCF 20 by 20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